

삶과 맞닿아있는 죽음의 심연

김정환 '자수견본집'
정일근 '저녁의 고래'
한영대역 시집 출간

시집은 읽지만 빨리 읽기 어렵다. 시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한 구절, 한 음절을 곱씹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시집 번역은 최상급 난이도다.

그렇다고 시인이 번역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건 사실상 어렵다. 시를 새로 쓰는 것과 같은 작업일 수 있다. 그러나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시인 김정환(66)씨가 신작 20편을 직접 영역해 '자수견본집'(아시아)을 냈다. 정일근(61)씨의 시집 '저녁의 고래'와 함께 한영대역본으로 나란히 출간됐다.

1980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한 김 시인은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다. 시집 '지울 수 없는 노래' '황색에수전' '회복기' '좋은 꽃' '해방서시' 등을 냈다. "다른 사람을 고생시키지 않고 직접 번역을 하길 잘한 것 같다. 영어로 내시를 체험해보는 기회였다. 전에는 없던 표현 영역이 생긴 것 같다. 보람있는 작업이었다"며 흡족해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작 시집 '자수견본집'(정일근)과 '자수견본집'(김정환) 출간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출판사 아시아 제공)

시인은 글 쓰는 일을 "가장 공적인 죽음을 가장 사적으로 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번 시집에서도 삶과 맞닿아있는 죽음의 심연을 짚었다.

"들어본 적 있는 소리가 언제나 체제하지만/영혼의 구성은 언제나 들어본 적 있는 소리다"('체제한 영혼 진혼곡' 중) 192쪽, 8500원 정 시인은 19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했다. '바다가 보이는 교실' '마당으로 출근하는 시인' '기다린다는 것에 대하여' 등의 시집을 냈다. 생명·생태·평화에 담긴 선함을 시작 언어로 풀어냈다. 작고 연약한 존재들에게 무한한 연민을 보였다. 시인은 세계 최초로 고래 시집을 펴낸 바 있다. 이번에도 고래에 관한 시가 담겼다. '내 친구 고래'라는 표현에 절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대구에 살고 있는 부부 번역가 지영실씨와 대니얼 토드파커가 옮겼다. 정 시인은 "울산에 와서 20년 가까이 고래에 관한 시를 썼다. 시인으로서 고래에 대해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것 같다. 애정이 가고 자부심이 있는 시들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문득 저녁 바다에 혼자 남은 고래/생각했네 내 오랜 바다친구인 고래는/이 별에 저녁이 오는 것을 알까"('저녁의 고래' 중) 112쪽, 8500원

두 시집은 우리나라 대표시인의 작품을 한영대역해 선보이는 'K-포엣' 시리즈에 포함됐다. 방현석 아시아 편집주간(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은 "한국 시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한영대역시를 내고 있다. 아마존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데, 약 20개국에서 월 100권 정도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도 신작 시집을 한영대역본으로 낼 계획"이라고 했다. /뉴스



순창군립도서관이 내일부터 현장을 탐방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진행한다.

순창을 그린 화가의 이야기

순창군립도서관, 내일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개강

순창군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모한 2019년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순창화가가 들려주는 순창이야기, 순창을 그린 화가의 이야기' 주제 강연에 이어 현장을 탐방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진행한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과 연계하고 독서·강연·탐방을 병행한 인문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유와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1,024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

순창군립도서관은 총 1100만원의 사업비로 내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강연 6회, 탐방 3회, 후속모임 1회 등 총 10회 진행되며 순창 출신 화가의 삶과 순창 예술에 대한 담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이영원기자

강사는 박남재, 피터오, 송만규, 조진호, 이영림, 이철량 등 순창출신 대표 서양화가부터 팝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이래로 4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순창군립도서관은 순창군민의 인문학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창군립도서관과 육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순창미술학교협동조합 등 민관학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문자산을 재해석하고 공동체적 가치회복을 구현으로 군민의 힘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

순창군립도서관의 인문학 특강은 그간 단편적 지식 습득의 단계를 뛰어 넘어 심층적이고 심화된 단계로 접어들면서 순창사회의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위해 지역내 인문학 열풍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순창=이영원기자



군산대학교 미술관이 중국 형수대학교와 한중 교류 초청전을 개최하고 있다.

군산대-중국형수대, 한중 교류 초청전 개최

군산대학교 미술관이 중국 형수대학교와 한중 교류 초청전을 개최하고 있다.

'HARMONY:하모니'를 주제로 한 이 전시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전주문화공간 기린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는 군산대학교 교수진과 중국 형수대학교 교수진이 작품 교류 활동을 통해 한중 우호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미술문화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학미술관이 장르별로 기획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형수대학교는 군산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한 자매대학교이고, 이번 전시는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회에 중국형수대학교에서는 리 타오, 쟡펑 교수 등 36명이 출품했다. 군산대학교에서는 고석인, 김병욱 등 교수 33명이 출품하여, 총 69편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대학교 교석인 미술관장은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특히 대학과 대학 사이의 학술 교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면서 "양교의 협력과 조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가 중국과 한국 미술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 형수대학교는 중국 하북성 형수시에 소재한 대학으로 현재 15개 단과대학, 2개 공과대학, 54개 학부 및 학과가 있다. 전임교원은 900여명, 재학생은 1만4000명 규모이다. /군산=김정훈기자

마한교육문화회관, 박준 시인 강연 · 한 밤의 버스킹 등 운영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한 달여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책과의 다양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시인이 사랑하는 시인' 박준 시인 초청 강연 ▲'한 밤의 버스킹' ▲'책 읽Go, 쓰Go, 체험하Go!' 등이 있다.

먼저 9월 27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마한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는 '시인이 사랑하는 시인'을 주제로 문학계의 아이돌 박준 시인을 만날 수 있다. 평론가 신귀백과 함께 짧은 시인 박준의 일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특히 박준 시인은 2030세대의 마

음을 움직이며 첫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와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겠지만' 두 권 모두 10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이변을 일으켰으며, 드라마와 각종 SNS에서도 그의 글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한 밤의 버스킹'은 9월 1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운영된다. 우쿨렐레 등 교육생 공연과 함께 독서 서약, 책 속 한 줄, 책이랑 달이랑 책놀이 등 풍성한 체험이 펼쳐지며,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책 읽Go, 쓰Go, 체험하Go!'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